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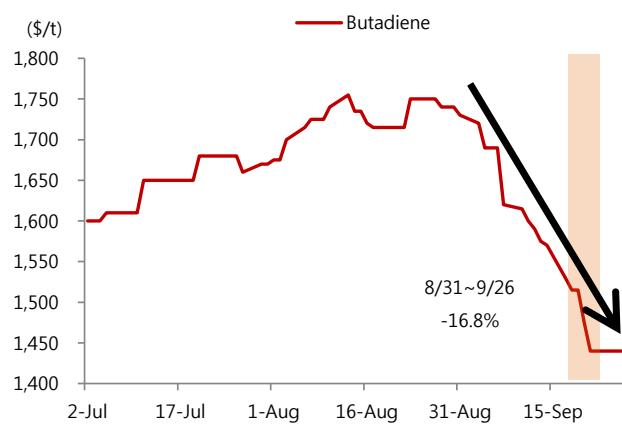
energy snapshot

Analyst. 손 지 우 / 3773-8827, jwshon@sk.com

화학, 기대했던 추석효과는 없었지만...

- ▶ 국경절 이전 화학의 re-stocking 모멘텀 이번에는 없었음. 다만 화-수요일 합성섬유업체 가동률 상승했고 시장 sentiment도 개선. 중장기 downturn 맞지만 단기 급락한 현 주가에서는 긍정적 접근 오히려 유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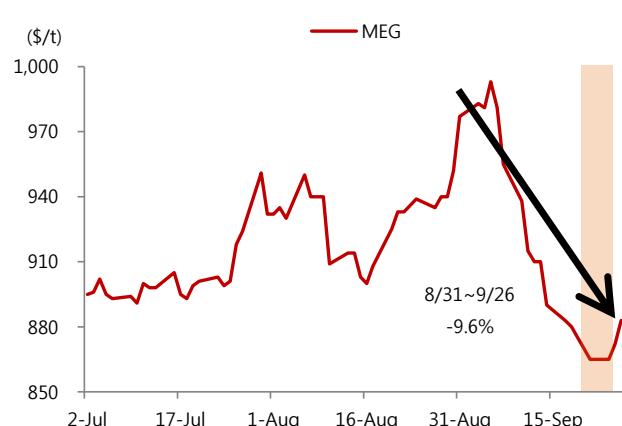
8월 말 이후 추석 연휴 직후까지 부타디엔 -16.8% 하락



자료 : Platts, SK증권

- 춘절(구정연휴)과 국경절(추석연휴)은 화학에 있어선 성수기나 다름 없는 때입니다. 바로 중국의 re-stocking 모멘텀 때문이죠
- 지난 9/3 Cyclical Bulletin Release 13에서 숫자로 분석했듯이, 2011년 이후로 본다면 통상 춘절/국경절 때 주요 화학제품 가격은 상승했고, 당연히 화학업종 주가도 동반 강세를 보이곤 했었습니다
- 따라서 이번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. 특히 최근 불황 우려로 화학 주가는 최악의 국면이었으니까요
- 그렇지만 늘 존재했던 춘절/국경절 모멘텀이 이번엔 없었습니다. 주요 제품가격이 대다수 하락, 넘어서서 급락세까지 시현되었습니다
- 8월 말 이후 추석연휴 직후까지 대표 화학제품인 부타디엔 -16.8% / MEG -9.6%의 하락세를 보였을 정도로 부진했습니다

8월 말 이후 추석 연휴 직후까지 MEG -9.6% 하락



자료 : Platts, SK증권

- 하락 원인부터 살펴보자면 일단 미중 무역분쟁 격화 따른 trader 우려감, 역외 저가물량 유입, 수요약세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
- 가뜩이나 미국 신규화학설비 가동에 따른 물량압박 우려감이 높은 상황에서, 믿었던 국경절마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버리니 화학 시장 sentiment는 정말이지 회복이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
- 다만 일단 국경절 이후 가격 하락세는 일단락되었고, MEG는 소폭 반등에도 성공을 했습니다. Trader는 지난 화요일-수요일 당시 downstream인 합성섬유 가동률이 올라왔고, 때문에 시장 sentiment도 기대 이상(better than expected)이었다고 합니다
- SK증권 리서치센터가 지속 주장한 바지만 순수화학의 중장기 downturn은 불가피합니다. 다만 주가가 단기 급락한 상황에서 제품가격 반등이 나온다면 trading 기회가 올지도 모릅니다
- 현재 주가라면 조금은 긍정적 마인드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

-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시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